



금강산 희귀 특산식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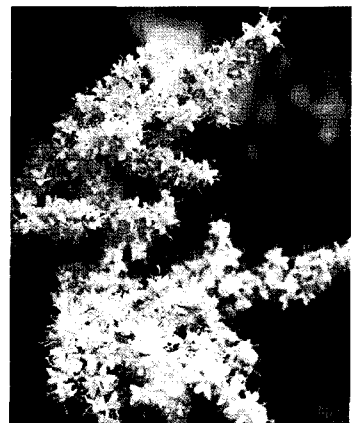
버들개회나무 남한에서 자생지 발견

국립수목원(원장 박종서) 보전·복원 연구팀은 그 동안 금강산에서만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진 버들개회나무(물푸레나무 科)의 자생지를 강원도 남부지방에서 발견하였다고 밝혔다. 국립수목원은 현재 버들개회나무의 생태학적 및 유전적 도태 가능성에 대비하여 현 지내·외 보존을 위한 대책 마련을 추진중에 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박종서)은 우리나라 희귀, 특산 식물이며, 금강산에만 자라는 버들개회나무(물푸레나무 科)의 자생지를 강원도의 남부지방에서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물푸레나무 科 수수꽃다리屬에 속하는 버들개회나무 (*Syringa fauriei* H.Lev.)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금강산에서만 자라는 특산식물종이다. 이 나무는 높이 6-7m까지 자라는 낙엽활엽수로서 깊은 계곡 물가에서 주로 자라며, 5월 말부터 6월초에 걸쳐 흰 꽃이 피는데 꽃이 아름답고 향기가 강해 관상적 가치도 높게 평가된다.

버들개회나무는 분류학적으로 가까운 수수꽃다리나 꽃개회나무에 비해 꽃이 흰색으로 꽃 통이 매우 짧고, 잎이 보다 좁기 때문에 쉽게 구별되고, 또한 유사종인 개회나무에 비해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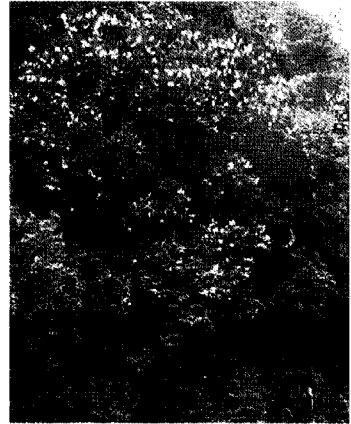


버들개회나무 꽃

버드나무처럼 잎이 좁고 길며, 열매의 길이가 약 1cm(개회나무 2~3cm)로서 보다 작은 것이 특징이다.

버들개회나무는 1908년에 금강산에서 처음으로 채집되어 “버들개회나무”로 명명되었으며, 개회나무가 일본, 중국, 러시아와 우리나라 전역에서 자라는 반면, 버들개회나무는 금강산에서만 자란다고 지금까지 알려져 왔다.

이번에 발견된 버들개회나무 군락은 어미나무가 약 70그루, 어린나무가 약 80그루로 총 150그루의 작은 군락이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적 교란으로 생태적 도태 가능성과 또한 개체수가 충분치 않아 유전적 다양성의 소실이 우려되기 때문에 현지내·외 보존을 위한 대책 수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버들개회나무 자생지 군락

국립수목원 박광우 산림자원보존과장은 새로이 발견된 버들개회나무 자생지에 대해서 유전적 다양성 분석 뿐만 아니라 생태적 도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밀한 생태적 특성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농로의 확장으로 훼손될 우려가 있는 일부 개체들은 국립수목원 보존원 및 동부지방 산림청 관내 보존용 포지에 이식하여 증식 보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山林**

국립수목원 산림자원보존과 정재민 연구사 (031) 540~1054

